

제작한 바에
수원에서 제작기 이우식
티내통용으로 창석하여
현대회·이비를 위한 예고
제작인 시현의 제작기 이우
시은은 표로 단장하면서
운제작기 향단 수원 기
운제작기 향단 수원 기
에서 리대회·이비를 위한 예고
이미지와의 차이·제작
인미국·한·미 고위자로서
나의 퀴리·다수가 참가한

태평양주도

주필

Published
by
Korean Dongji Hoi
931 N. King Street
Honolulu, Hawaii, T. H.
P. O. Box 1573
Phone S98-49
B. Y. Choy, Mgr.
Choo Choi Editor

운데 성상대회 거령경 되어라
주사와 어오 시마다 고관아 대
주사와 봉인 입자장한 리에
동령에 대한 경례로 서
을 시작하여 미 제 三 박수 읍
을 성상대회 거령경 되어라
주사와 어오 시마다 고관아 대
주사와 봉인 입자장한 리에
동령에 대한 경례로 서
을 시작하여 미 제 三 박수 읍

Established Sept. 1913

태평양주보

속회전에도 학부기
하국 원자부 기에
[신제독] 어느 회의
동양의 미 페인양전구 사
례인판 「페인스」 스타일은 제
동은 일 동경에서 「만
일 고양주주의자 들이 전
제일 시각화하고 그들은 신
라거를 바탕을 거시간
라고 말하였다
한 페인양전구의 전미
고우군·우리군이 베이징의
총사령관을 임명된 그
를 노예화하는 고양주주의
잔들의 암이이라고 말하였다

「스탈린」 제독은 「한국이
나 대만주에서 고양주주의
즉 각각으로 고양적을
다 람은 제독은 일 차단
과 회거한 자리에서 「페인
양전구의 미군이 단련하고
평양에 있는 세계
전부분을 험화하고 이
의 선부분을 험화하고
노예화하는 고양주주의
잔들의 암이이라고 말하였다

「스탈린」 제독이 「한국이
나 대만주에서 고양주주의
즉 각각으로 고양적을
다 람은 제독은 일 차단
과 회거한 자리에서 「페인
양전구의 미군이 단련하고
평양에 있는 세계
전부분을 험화하고 이
의 선부분을 험화하고
노예화하는 고양주주의
잔들의 암이이라고 말하였다

「스탈린」 제독이 「한국이
나 대만주에서 고양주주의
즉 각각으로 고양적을
다 람은 제독은 일 차단
과 회거한 자리에서 「페인
양전구의 미군이 단련하고
평양에 있는 세계
전부분을 험화하고 이
의 선부분을 험화하고
노예화하는 고양주주의
잔들의 암이이라고 말하였다

「스탈린」 제독이 「한국이
나 대만주에서 고양주주의
즉 각각으로 고양적을
다 람은 제독은 일 차단
과 회거한 자리에서 「페인
양전구의 미군이 단련하고
평양에 있는 세계
전부분을 험화하고 이
의 선부분을 험화하고
노예화하는 고양주주의
잔들의 암이이라고 말하였다

「스탈린」 제독이 「한국이
나 대만주에서 고양주주의
즉 각각으로 고양적을
다 람은 제독은 일 차단
과 회거한 자리에서 「페인
양전구의 미군이 단련하고
평양에 있는 세계
전부분을 험화하고 이
의 선부분을 험화하고
노예화하는 고양주주의
잔들의 암이이라고 말하였다

「스탈린」 제독이 「한국이
나 대만주에서 고양주주의
즉 각각으로 고양적을
다 람은 제독은 일 차단
과 회거한 자리에서 「페인
양전구의 미군이 단련하고
평양에 있는 세계
전부분을 험화하고 이
의 선부분을 험화하고
노예화하는 고양주주의
잔들의 암이이라고 말하였다

「스탈린」 제독이 「한국이
나 대만주에서 고양주주의
즉 각각으로 고양적을
다 람은 제독은 일 차단
과 회거한 자리에서 「페인
양전구의 미군이 단련하고
평양에 있는 세계
전부분을 험화하고 이
의 선부분을 험화하고
노예화하는 고양주주의
잔들의 암이이라고 말하였다

속회전에도 학부기

단국 말하였다

[제스터]로 쓰

는 아직도 진정으로 이

는 사람에게 있어

그의 예술을 마쳐다

말하

서 후보자

부

수표명

이 선출되었을 때

17

이에는 미스 아메리카가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각 잘서 국수의 쇠기를 바
로 차기 위하여 조국의 산천을
나아가 천으로 한 경계를 드리고
기약하고 보람이 이제 대
하는 경운이 득립하지 더
나를 헤아리지 되어 드니라
국지로 나와 계령을 하여
하여 서상을 밟고 겨하를
이겠는 드리기 전에 이의 척
내보 거칠진 속성이 미숙하고
다 그동을 험하고나
위로 그분 암을 가제로 향나
마리의 길이 너루나 오워
한 이행이니 하옵니다
수 면전 고교에 륙수 하
여 수를 선제하는 데려 가진도
본래 천재하고 후에 베두
시와 무수히 강사 하여 승진나
다 하와이는 창을 알리
드들이 애우하는 리사상향이
가능하다 우리들은 괴화
하늘에 기대하니
는 것은 이아이의 제이
는 우주에 하는 데서나 제이
를 하려고 자우미는 어이가
자나 미아화의 허위로
진인들은 아우
나 긴 흐른
부인 저인들을 애우
나이다

리더—나 양은 회장
와이기계 빠인 부탁에
인파로 메토 사여봉을 하시기
리져우치와 도부이의 수
리더—나 양은 회장의 이
로서 회장이 토종주의
후에 충도에 선주로
국인계에 며여기계
거슬을 우리인바이
자제하
바이다
리양은 자제하 족 기
에 미한에 나마주 음악
학교에서 음악과를
학자가 하기 바이학에 허각장
언어 회화학에 조보로님
에서 후지정 주 '六六'에 二十一
일 저녁에 치는 치는
청정으로 암자 처우의 전에
서 노는가 회가는 길에
회이드니 다른 차가 부드쳐
동네에 어지다 치는 치는
임원회에 이를 키운 그 전에
이집트에 두 주인가 치는
주만 혹은 차를 암자 지
간十四인에 되었을 때에
데 불행이 다친임을 듣는 듯
피하는 암설사하고 하다

죽음을하고 부인 부인
의 힘을리는 하늘 체마다
에선 천나리니 누드는
여다
부분 성지승을 마지하는
기쁨이노 비축조회 학부식
로 단차하고 순교를 예의제를
하는 보조제를 예의제를
은 하늘을 이자와 예의
선한도는 이사장을 주어
하급관과 그의 아내 부인의 친
구들을 가지 하루로 달자
하여수령으로 이자와의
비거리를 떠나고
온다
어사다
경기로 이곳의 바쁜 사무
제이어서 회화의 밤이
다고 자주와 함께 한다
이란 바의 기쁨을 서
도 한신 편의회 부인과 서보
수부인과 부하의 사의로
어제께 표포영아 할머니는
온신도가 성기자 아니는
황에 가장 귀족하는 재정
한행을 바위 기쁨이든마
하여사다
나구나 무능력 노려가
양한 사람에 양기리하고
성경자는 그 허리에 예의제를
성적이 이 사고는 이정성 선
을 이날방법 보이미에서 그거
노래나 부인도 예의제를 예의
누구나 서로 끝까지 예의제를 예의
우모다 순기경을 서로하고 가
제이제히 산업이하고 하는
처선교를 시리히 사람에
유언방을 거예한 기회를 말하고
도 이와비슷한 기회를 말하고
고전을 말하고 저 사람들은 말하고
비롯이 지역에 학원이
이인에게 이복이 처벌적
인인 고기가 이스터니 하니 악
심의 소작을 이나를 몸이
에서 알리다 라고 기부이

교회 모임

◆ 호랑이 친구 거독교
七월 二十一 일
주인 아침 예배 + 시
예어와 한글 설교 제목
‘소망이 어디까지 가는지
看見도 . . .’
설교자 김처연 목사

이호각 鄭虎閣

호황 한인 미독교회
七월 二十一일
주일아침 예비十一시
영어와 함께 설교제목
‘소망이 일어나는 것’
서에도 一一·一一
설교자 김처연 목사

正文卷一

◆ 와히아와교회 주일학교
학성당에서 특별법으로
풀풀려보면서 바다를
나를 저보리니 짐작하여
이 박물관에 올라온 한시 부터
세계에서 스자지에 걸쳐 목사부
인의 이노하에 자마나제 비
문화 사사기 나를 나를 자락
나 애호장을 만날 엄마 미자
를 즐거움을 바라보니 일년반
여행은 그 기가 차운 크다. 이
여인이 들에게 못지 않게 재우
도를 서도 주일 저녁과 삼

서울정의각 교통을
발달

여남부인회
특별광고
본국이 남부인회에선
온한 사건이 이어서 이
와는 늘이 합자회에 모
겨운을 희의하고
자에 반포하오니
회원들 이익을 네시고
고 철원회원들이자 어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게

회
관

간에서
이동하고
작만한
음식으로
수제
아조님의
자랑한
식이 예술입니다.
당기기에
만족하게
처분거
분의
크신 고인원거울을
인정해
나주시에서
감사
당신
마흔
임시당
보통
수고하시느라
군과 둔한
이름다운
레물
보니주신
여러분과 와
아와
부인
사포회원들은
세와 혼령
부이회원들을
무하히
각사합니다
길갈라
여기

11

정상원	(三〇〇)	一月 二十二日
리정오	(三〇一)	一月 二十四日
라금산	(三〇二)	三月 一日
순우준	(三〇三)	三月 十五日
신경화	(三〇四)	三月 十九日
장희봉	(三〇五)	三月 二十日
오대유	(三〇六)	四月九日
김원우	(三〇七)	四月二十二日
유노득	(三〇八)	五月六日
주지덕	(三〇九)	六月五日
리성렬	(三一〇)	六月九日
한석권	(三一一)	六月十三日

감사문

금년에 말다의 진가를 담아
하여 서복수 김주수 박미고
조조희나 청양필순 말다의고
조승찬 김립임당 나의 도송자
한국여선씨 뇌체재 하경이희

卷之三十一

려나남 부인회 토양상회 서인
본 텔이나루이 회 토양상회 를 이워로 아지막 주일 오후
누시에 박제여수석 사탕에 서 모해암나비 일반 회
는 이나마을에 난시석고 이를석상 하여 주시기 복방 하우
니다 모하는 농부에 모든 이를석상으로 드를 미나이다
주이라도 참석하하시임을 간절히 바람니